

IT 컨버전스화 ② 단말기

근거리무선 · 모바일방송폰 ‘시선집중’

삼성 · LG, 세계 융복합 휴대폰 시장 주도 대량판매는 아직 미지수 · 시장 개척차원

모바일타임스가 작년 12월 증권사 · 리서치사 · 경제연구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주목할 제품 1순위로 컨버전스 단말기가 꼽혔다. 모바일 기기의 융복합화 추세와 맞물려 피할 수 없는 경향이 컨버전스 제품인 것은 사실이지만 애널리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컨버전스 바람이 거셀 것으로 전망한 이유는 다양한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글 | 김종율 기자(모바일타임스, people@cellular.co.kr)



IT세상에서 휴대폰을 중심으로한 컨버전스 열풍은 계속 일어왔다. 모든 디지털 기기가 휴대폰과 만날 것으로 예측한 일부 애널리스트 견해가 아니더라도 휴대폰을 매개로 생활의 중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휴대폰의 컨버전스화는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그동안 휴대폰의 컨버전스화를 선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카메라폰과 음악 플레이어폰을 들 수 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작년 카메라폰 판매대수는 3억대로 휴대폰 총 출하량의 40%에 육박했다. 이 정도의 점유율이라면 저가폰 시장을 제외한 하이 및 미들엔드 시장용 휴대폰 대부분에 카메라가 채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카메라에 이어 컨버전스화를 선도한 것이 음악플레이어폰이다. 국내의 경우 2003년도부터 시작된 이 조류는 2004년 완전히 휴대폰 시장을 점령했으며, 작년의 경우 더 이상 화제가 되지 못했을 만큼 일반화된 경향이다.

세계 시장은 국내보다 다소 늦어 작년부턴 급격하게 음악플레이어 휴대폰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모토로라의 아이팟노폰, 소니에릭슨의 워크맨폰, 노키아의 엔시리즈폰 등이 시장을 견인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근거리무선 휴대폰



그렇다면 올해 컨버전스화를 선도할 기능은 무엇일까?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최근 추세는 근거리 무선통신 지원으로 압축되고 있다. 블루투스 · 무선랜 · UWB 등 휴대폰과 접목될 수 있는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블루투스폰에 관한한 삼

성전자가 애착을 보이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이미 '블루투스 슬립폰'을 출시해 블루투스 휴대폰 확산에 노력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블루투스 지원 GSM방식 휴대폰 2종(SGH-E750과 SGH-E760)을 발표기도 했다.

LG전자와 큐리텔도 내수 시장에 블루투스 휴대폰을 선보이긴 마찬가지.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업앤다운(Up&Down) 슬라이드 디자인을 채택한 블루투스 뮤직폰(모델명: LG-LP3900)을 출시한 바 있으며, 큐리텔은 작년 12월 선(線) 없이 국내 최대 9가지 3D 입체 음장(音場)효과를 즐길 수 있는 '400만화소급 블루투스 뮤직폰' (모델명: PT-K1700)을 내놓은 바 있다.

무선랜폰과 UWB폰도 올해 세인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기술 지원이 시장 확산을 이끌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컨버전스의 한 축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3월 무선랜을 내장한 뮤직폰(모델명: SPH-M4300)을 출시해 화제를 모았으며, LG전자는 9월 수출용으로 무선랜 기반의 와이파이폰(LG-CL400)을 개발했다.

UWB지원 휴대폰은 상용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 프리스케일에 따르면, 조만간 세계 최초로 근거리무선통신 기술인 UWB를 지원하는 상용 휴대폰이 출시된다. 프리스케일의 마틴 로프하트 이사는 "2006년 3GSM월드콩그레스 행사에서 프리스케일의 휴대폰용 UWB칩을 채용한 상용 휴대폰이 출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제품 출시 유력 업체로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꼽히고 있다. 모토로라는 2004년 CES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작년 3GSM콩그레스 행사에서 UWB지원 컨셉폰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모바일방송 휴대폰



근거리 무선통신 지원 휴대폰과 더불어 휴대폰의 컨버전스화를 주도할 기술로는 모바일 방송이 있다. DVB-H, 위성 및 지상파, 미디어플로 등의 방

송 기술이 휴대폰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위성 및 지상파DMB와의 컨버전스화는 이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메이저 휴대폰 업체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통사들마저 지상파DMB의 단말기 유통을 시도키로 한 마당에 컨버전스의 핵으로 불리는 휴대폰과 지상파DMB간 결합을 휴대폰 업체들이 간과할 리 없다는 것이다.

퀄컴이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방송 기술인 '미디어플로' 지원 휴대폰도 주목을 받긴 마찬가지이다. 국내 도입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올해 말 미국의 버라이즌이 상용화를, 내년 일본 KDDI가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나란히 미디어플로 지원 휴대폰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의 경우 버라이즌와이어리스의 미디어플로 상용화 때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바일TV 기술은 올 휴대폰 업계의 주요한 트렌드로 등장할 전망"이라 설명하고 있다.

'PMP+휴대폰'도 궁합

PMP를 주축으로 한 컨버전스화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PMP와 휴대폰, PMP와 내비게이션 및 위성DMB, PMP와 지상파DMB 등 다양한 결합이 PMP를 중심으로 시도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디지털큐브가 PMP용 지상파DMB 수신기를, SKC&C가 위성DMB와 내비게이션을 결합한 PMP를, 삼성이 PMP를 접목한 휴대폰을 선보인 바 있다.

나도 있다 '와이브로'

휴대폰의 컨버전스화에 와이브로 기술이 제외되면 일부에 선 서운함을 감추지 못할 것 같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열렸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PDA 형태의 단말기(M8000)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일반 휴대폰 형태의 단말기(H1000) 등 2종을 전시했다.

휴대폰은 아니지만 게임기에도 와이브로 기술은 채용되고 있다. 레인콤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와이브로 게임기'가 'CES 2006'에서 공개된 것. 휴대형 와이브로 온라인 게임 단말기인 아이리버 G10(가칭)은 올 8월 본격 시판 예정이다. **☐**